

해양학자의 환경일기 '서른일곱 번째 기록-기후재난 산불'

이타적 유전자

윤승태
경북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
해양학전공 부교수



지난 3월 엄청난 산불이 경북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다. 3월21일, 경상북도의 성군의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강한 서풍을 타고 삽시간에 확산되었고, 동해안에 위치한 영덕군까지 번졌다.

필자는 당시 대구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울리는 재난 속보 알람으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다행히 산불의 피해가 대구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장기간 이어진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은 무려 150시간 동안이나 꺼지지 않았고, 3월28일이 되어 서야 주불 진화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는 가히 충격적이다. 서울 면적의 약 75%에 해당하는 450km²면적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단일 산불로는 최대 피해 면적이라고 한다. 인명 피해 또한 적지 않았다. 총 28명이 목숨을 잃었고, 32명이 다쳤으며, 피난 인원은 무려 3만 6000명을 넘었다. 이 외에도 3481개의 건축물과 27건의 국가유산이 피해를 입었다. 이번 화재는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던 중 널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이다.

이보다 앞선 1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유사한 대형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LA 해안가의 고급 주택가까지 산불이 번지면서 유명 연예인들이 대저택을 뒤로한 채 대피하는 장면이 SNS를 통해 퍼지는 등 산불의 심각성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1월7일부터 31일까지 발생한 이 산불은 LA 광역권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해 확산된 것으로, 230km²면적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인명 피해도 컸다. 총 28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1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되



지난 3월27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야산에서 야간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었다.

특히 20만명이 넘는 이재민과 최대 2750억 달러(한화 약 400조)에 달하는 재산 피해는 이번 산불이 최근 40년 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화재들 중 가장 큰 규모였음을 방증한다.

이렇듯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근의 산불은 규모와 지속성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해 뚜렷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무엇인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일까?

전문가들은 그 배경에 '기후변화'라는 이름의 커다란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나무가 많은 산림 구조가 이번 산불 확산의 요인으로서 제기되기도 한다. 활엽수에 비해 소나무는 화력이 강하고 불에 오래 타는 특성을 지닌다. 하지만 이번 산불처럼 대규모로 번지는 상황에는 기후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이 많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지구 온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후의 '극단화'를 동반한다. 이례적인 폭우가 한해를 덮친 뒤, 그 다음 해엔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는 식의 기후 극단화가 반복되거나, 북극 해빙 감소로 북극 제트 기류가 강화되어 이례적 강풍 발달을 유도하기도 한다. LA 산불의 경우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섭씨 29도에 달하는 이례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 강풍이라는 '완벽한 삼박자'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의성에서 시작된 이번 경북 산불 역시 동해안의 고수온 현상이 심각해지며 고기압이 발달해 비가 내리지 않고 3월부터 고온 건조한 환경이 조성된 상황,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로 서풍이 강화된 환경 속에서 그 피해 규모가 커진 것이다.

최근 몇 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과거에는 주로 봄철에 집중되었던 산불이 최근 들어 사계절 내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변화 중 하나다. 산불은 이제 특정 지역이나 계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상적 재난이 되어가고 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잃어버린 삶의 터전과 상처 입은 자연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산불을 단지 '자연재해'로만 여기지 않고, 기후 위기의 또 다른 얼굴로 직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재난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기후 대응과 재난 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국민안전의 날, 우리 주변은 과연 안전한가

발언대

박재영

무안경찰 경무계장



임야 주변에서의 소각행위 금지를 홍보하지만 "뭐 큰일이야 나겠어?"라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결국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이다.

경찰에서는 수년 전부터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불안정한 시설물이나 도로, 주변 환경 등을 발굴해 관련 기관에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우리 주위의 불안정한 것들을 의식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쉽게 지나치지 않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곳곳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당장의 편리함과 수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를 시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국민 모두가 안전의 감시자로서 주변에 불안정한 요소들을 찾아내 나와 내 가족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를 당부드린다.

4월16일 '국민안전의 날'이다. 지난 2014년 4·16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이는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고 이를 방치한 결과 대형 사고나 재난이 발생한다는 법칙이다.

올해도 부주의한 소각행위 등으로 인해 경남 산청·경북 의성 등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26명이 사망했고, 축구장 2602개 규모의 산림과 주택이 소실되는 재난이 발생했다. 매년 봄철이면

보아 "사적으로 힘든 시간 겪었다"

취중 라방 논란 뒤 심경 밝혀 "무너지는 순간, 팬·음악 있더라"



못한 이유는 "음악이 사라지면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어떤 형태든 여러 분들과 음악으로 연결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가수 보아(BoA·사진)가 최근 취중 라이브 해프닝 등 힘든 시간을 겪은 이후 심경을 전했다.

보아는 15일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지난 몇 년간 저는 일본 아니라 사적으로도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다. 그럼에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고 믿었었다"고 적었다.

하지만 그 달려가는 모습이 어떤 분들께겐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보아는 예전엔 그저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하지만 세상도 바뀌고, 자신도 변하고 그 변화들이 동시에 밀려오면서 "이 자리가 내가 서 있을 곳이 맞는 걸까?"라는 고민을 수없이 반복했다고도 털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가 음악을 놓지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 속에서도 여러분과 음악이 있더라"는 얘기가.

보아는 마지막으로 "그 힘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끌어올려보고 싶다. 언제나 믿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조용히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오늘도 보아입니다"고 덧붙였다.

보아는 지난 5일 MC 전현무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코미디언 박나래에게 실례가 될 수 있는 말을 한 뒤 바로 사과했다. 뉴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